KBS NEWS

Q

강릉·동해 산불 90시간 만에 진화 완료···잔불 정리 중



👫 재난포털

ON AIR

[단독] 차량 보조배터리 화재 잇따라···KC인증 당국 '나몰라 라'

입력 2021.04.21 (21:45) | 수정 2021.04.21 (22:20)

뉴스 9









이른 더위에 찾아온 불청객 '오존' …마스크도 무용지물

[앵커]

요즘 차량 블랙박스가 계속 녹화할 수 있게 차량용 보조배터리를 다는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안전성 검사를 통과해 KC인증까지 받은 제품들인데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차량용 보조배터리에서 폭발 화재가 잇따르는 것이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김유대 기잡니다.

[리포트]

지하에 주차된 SUV 차량 내부가 온통 검게 그을렸습니다.

불이 난 곳은 조수석 아래, 차량용 보조배터리입니다.

블랙박스를 켜두기 위해 따로 설치한 배터리입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방송사 공동 출구조사] 이재명 47.8%, 윤석 열 48.4%, 심상정 2.5%

출구조사 '초박빙'…각당 현재 반응?

대선 투표율 오후 6시 현재 75.7%···19대보 다 3%p↑

이 시각 이재명 후보 자택 앞

코로나19 현황 🌋



많이 본 뉴스

- 1 대선 투표율 오후 6시 현재 75.7%···19대보다 3%p↑
- 2 [방송사 공동 출구조사] 이 47.8%, 윤 48.4%, 심 2.5%
- 3 이 "수백 표로 결과가 달라져" 윤 "투표율 기 대에 못미쳐"
- 4 "경북·강원 산불 났는데"…'제주들불축제' 어쩌나?
- 5 '아이폰SE3'·'아이폰13 그린' 공개···시장 평가는?
- 6 'NLL 월선' 북한 선원 7명, 북으로 송 환···"항로 착오로 넘어와"

[차량용 보조배터리 화재 피해자 : "(블랙박스를) 상시로 켜 놓으면 방전되지 않습니까. 요즘 추세가 다 보조배터리를 다니까 저도 달았죠."]

지난 2월부터 한달 새 국립소방연구원에 감식 의뢰가 들어온 차량 보조배터리 화재만 7건.

해당 제품으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배터리 과충전 상태가 된 지 불과 10분.

갑자기 불길이 치솟습니다.

곧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8초 뒤 2차 폭발, 다시 3차 폭발까지 나면서 파편이 날아다닙니다.

차량용 보조배터리에는 이런 원통형 배터리가 10여 개 들어갑니다.

강한 열기와 함께 폭발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형체를 알아 볼 수 없게 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리튬배터리의 충전 용량이 온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주변 온도가 85도면 충전 용량은 7.5%, 120도에선 22%나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차 안의 온도가 올라가 배터리 충전용량이 떨어졌는데도 계속 충전이 이뤄지면서 과부하로 폭 발하는 겁니다.

[나용운/국립소방연구원 연구사 : "리튬이온배터리는 온도 변화에 따라서 그 특성이 변합니다. 고온 환경에서 지속 충전하거나 방전할 경우 화재 연관성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 제품은 KC 인증까지 받고 이미 전국에 3만 개 넘게 팔려나간 상태입니다.

화재가 잇따르고 있지만 해당 업체는 폐업신고를 한 뒤 연락도 닿지 않고 있습니다.

[나용운/국립소방연구원 연구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차량용 보조배터리 모두 화재 위험성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온의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KC 인증을 내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KBS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실태파악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292 CH통령 /선거 제20대 대통령선거 출구조사 • 개표현황 보러가기 →









오늘의 HOT클릭!









절반만 찍히거나 겹쳐 찍었어 도…선관위 "모두 유효표"

[20대 대선 인증샷] 내 손으로 신규 확진 34만여 명 역대 최 뽑는 대통령 "투표했어요~"

다…누적 500만 명 넘어서

"경북·강원 산불 났는 데"…'제주들불축제' 어쩌나?

'아이폰SE3'·'아이폰13 그린' 공개···시장 평가는? 울진·삼척 산불 엿새째…전체 진화율 70%

검게 타 버린 '송이버섯' 주산지…올가을 '금송이' 될까 [영상] "특정 후보 연상시킨다?" 투표 도장까지 바꾼 사연 중국 매체, 한국 대선 각별한 관심···"누가 이기든 한중관계··· 피치, 러시아 신용등급 C로 강등···"국가부도 임박"

지역뉴스

부산 울산 창원 진주 대구 안동 포항 광주 목포 순천 전주 대전 강릉 원주 청주 충주 춘천 제주

뉴스 아카이브

KBS소개 ▲ 시청자권익센터 사이버 감사실 광고 이용약관 법적고지 개인정보처리방침

KBS N 채널 ▲

KBS WORLD 🔺

KBS / 0723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여의도동) / 대표전화 02-781-1000 / 기사배열 책임자,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은정 KBS뉴스 인터넷 서비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45 KBS미디어센터 / 시청자상담실 02-781-1000 / 등록번호 서울 자00297 (2010년 6월 23일)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